

치 사

제12회 불교출판문화상을 맞이하여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수상자와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시대에 조용하는 불교문화의 선양과 우리의 삶에 수승한 가르침을 친절하게 전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시는 출판인을 비롯하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덕을 나누며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은 쉽지만 가볍지 않고, 넓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그 가치가 더욱 향기롭습니다. 더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은 개인의 작은 결심만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임에도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은 불교사상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무겁지만 행복한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앞날을 내다보며 불교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출판인의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교계의 출판인, 그리고 그 결실들이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엮어낸다면, 불교출판은 물론 불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

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원력을 다하고 계시는 불교출판문화협회 지홍스님을 비롯한 불교출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출판인 분들의 서원으로 불교와 전통문화 보급이 성성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걸음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2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